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5월 21일)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非종교인 62% "불교 믿을까" 유입 위한 '넥스트 스텝' 필요

탈종교 현상 뚜렷한 가운데
불교 향한 대중 호감도 상승
템플스테이, 명상, 채식 등
MZ세대 신문화 소비가 요인

반짝 관심 넘어 정착 위해선
계층 신도 · 청년 거점 사찰 등
지원으로 포교 공백 메꿔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종교를 믿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탈종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교를 향한 대중들의 호감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13일~17일 나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5%가 '최근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떠오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66.8%와 30대 응답자 70.4%가 불교의 인기가 '체감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 역시 불교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 62%가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로 불교를 꼽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자가 감소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믿는 인구도 증가세다. 이에 따르면 불교 신자는 2016년 25.2%에서 2024년 30.6%까지 치솟았다. 천주교가 2016년 24.5%에서 2024년 18.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다.

불교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대하다. 불교계는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를 주고 있다. MZ세대들에게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경전을 읊는 것에서 벗어나 직관적으로 종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4~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이곳은 2030세대의 관심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불교박람회는 사전등록자가 4배,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전년대비 3배 증가했으며, 이중 80%가 2030세대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리더 500인의 세대공감 토크쇼 '담마토크'는 현장관람객 만석을 기록했으며,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캐'인 '뉴진 스님'으로 등장해 진행한 디제잉 쇼는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다. 덕분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가 이렇게 힙할 줄 몰랐다"는 이미지와 '유연한 종교'라는 인식을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명상, 채식위주의 식단이 MZ세대들에게 신문화로 소비되면서, 활력이 된 것도 이유다. 이전에는 '사찰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싱싱하고 신선한 매력이 있다" "쉼과 재미가 함께 한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엠브레인 측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종교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는 인식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 종교계의 위상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불교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새로운 방식으로 종교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갑작스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는 불교 열풍이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착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어떤 종교가 더 인기가 있냐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단순 재미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미와 관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불자로 유입시키고 신행활동을 유지시키는 방안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 법회와 스님들의 설법, 사찰의 신행체계 등이 젊은 세대가 선호할만한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찰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스님이 본인 연령에 맞는 신도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출가자 감소로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층별 신도를 발굴,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종단에서도 젊은 세대를 핵심 신도로 만들기 위해 지원, 포교 공백을 메꿔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활동하기 좋은 사찰을 선정, 청년층 거점 사찰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절로'가 미혼남녀 응원합니다 미혼남녀들 사이에서 인연맛집으로 입소문 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의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연일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5~1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나는 절로'에서는 7커플이 성사, 역대 최대 커플이 탄생했다. 미혼남녀 각 15인, 총 30인이 참가한 이번 만남템플스테이에는 총 248명이 신청, 남자 10:1, 여자 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송현공원 이승만기념관 목숨 걸고 막겠다"

태고종 총무원이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강행 시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19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이하 추진위)의 예방을 받고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 스님과 총무원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불교문예예술원장 지허 스님이 배석했다. 추진위 측에서는 김황식 추진위 이사장과 손병두 추진위 건축위원장, 김군기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상진 스님은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스님은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훌륭하게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한국스님들이 훌륭하다보니 한반도를 침탈한 일제는 스님들을 결혼시키며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불교를 탄압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불교가 분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이 탄압을 당한 것이 현재의 태고종이다. 그런 상황에서 태고종 총본산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건립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상진 스님은 "기념관 건립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중심에, 송현광장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 건립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태고종, 기념관추진위 예방서 천명
상진스님 "송현공원 內 건립 불가"
추진위 "이승만 때문에 흔들렸다면
불교 자체가 문제 아닌가" 망발도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달한 정화유시가 헌법 상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을 꼬집었다. 능해 스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불교의 내부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부터가 잘못이고 과오"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불교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태고종 총본산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인가. 이는 태고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건립을 추진하려면 추진하라.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추진위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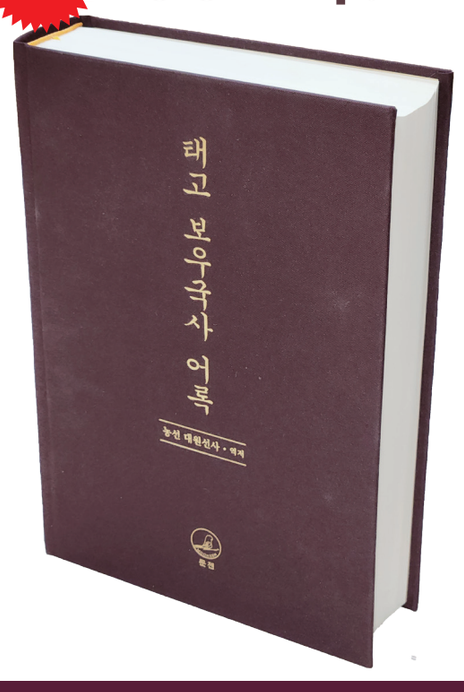
이에 추진위 측은 "36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쳤지만, 현재 일본과 화해하고 교류하고 있다. 태고종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풀어달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 아니겠냐"고 읍소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추진위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를 탄압했다는 주장은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들이 각각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스님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수천년 한국불교 정신이 흔들리지 않지 않는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흔들렸다면 불교 자체도 문제"라고 망발을 이어갔다.

이에 "부처님은 자비만 베푸시지 않았다. 악한들이 있으면 몸을 낮춰 호법신장(護法神將)으로 나투어 물리치셨다"고 밝힌 상진 스님은 "태고종에는 분쟁의 역할을 담당했던 스님들이 아직 살아 계시다. 그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태고종과는 합의점이 없다. 강행 시에는 전쟁임을 알라. 현 사안은 합의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간 992쪽!



농선 대원선사의
〈태고 보우국사 어록〉

〈태고화상어록〉은 불교 배척 운동의 핵심 인물인 이색과 정몽주가 서문과 발문을 쓴 책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확철대오한 선(禪)법문은 다 걸러지고 대신들에게 지어준 당호에 쓴 송(頌)들로 엮어져 있다.



농선 대원선사는 그 송(頌)들 속에 스며있는
태고 보우국사의 깨달음의 경지를 '도움말'로 드러내어

본 〈태고 보우국사 어록〉을 출간하였다.
각 송에 부연한 농선 대원선사의 도움말은 선(禪)법문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참 교과서와 같은 지표가 될 것이다.

한국 불자들의 소원인
〈해동전등록〉 결집!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정맥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에 의해
해동 신라로 전해져 '구산선문'으로 계승되었고
57조 태고 보우국사에게 이어졌습니다.
중국 선(禪)사상에 못지않은 이런 해동의
선(禪)이 지금 결집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농선 대원선사께서 90의 연세에
〈해동전등록〉을 결집하고자 하시니
모든 불제자님들께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구산선문'의 법문집이나 게송집을 보내주시면
화엄경81권, 전등록30권, 선문염송30권 중
한 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농선 대원선사 역저/99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문젠 문젠 교무부 : 010-8670-1445